**연산군에 대한 재평가**

: 연산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  |  |
| --- | --- |
| 제출일 | 2015.6.15 |
| 과목명 | 글쓰기와 읽기 |
| 교수명 | 신희선 교수님 (40분반) |
| 학부 | 컴퓨터과학부 |
| 학번 | 1515655 |
| 이름 | 임소희 |

목차

[**I** **서론** 1](#_Toc422013194)

[**II** **본론** 2](#_Toc422013195)

[1. 연산군대의 시대적 배경 및 연산군의 사상 2](#_Toc422013196)

[1) 시대적 배경 2](#_Toc422013197)

[2) 연산군의 사상 2](#_Toc422013198)

[2. 연산군대의 정치와 사건 3](#_Toc422013199)

[1) 신권 견제 3](#_Toc422013200)

[2) 패륜 행위 3](#_Toc422013201)

[3) 호색한 4](#_Toc422013202)

[3. 연산군의 폐위 원인 5](#_Toc422013203)

[**III** **결론** 5](#_Toc422013204)

[**참고문헌** 6](#_Toc422013205)

# **서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반도이면서 중국과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형세다. 그래서 지난 이천여 년간 이들의 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화 추세에 의해, 미국 등 지리상 먼 나라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권력 각축장이 되었다(사드 배치, AIIB 가입 등). [[1]](#footnote-1)이로 인해 지도자의 외교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동부형제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패륜을 저지른 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명과 청 사이의 중립외교로 실리를 챙긴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이 두각을 드러내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는 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도 우리의 시대상황에 맞게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재평가를 해봐야 하는 과거의 인물 중 한 사람을 꼽자면 연산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 동안 폐위된 두 왕 중 한 명인 연산군은 희대의 폭군으로 저명 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인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에 쓰여진 연산군이 폐위에 당위성이 있을 정도로 폭군이었는지, 혹은 역사의 승리자인 반정 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의 산물인지 판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사의 재평가에 관하여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H. 카의 관점을 통괄하며 역사에 대한 판단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 **본론**

## 연산군대의 시대적 배경 및 연산군의 사상

### 시대적 배경

연산군이 즉위하던 전 후 시기는 조선왕조 중 가장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때이다. 하층민인 노비들도 큰 집을 짓고 살고, 외국으로부터 사치품 밀수입이 활발하였다. 게다가 근검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유생들마저 사치를 부렸다.[[2]](#footnote-2) 이와 같은 사치하는 풍습은 연산군 때까지도 이어졌는데, 즉위 후 연산군은 사치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제절목>이라는 사치 금지령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사치스러운 방탕적 생활은 개인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집권층들의 이상적 정치형태는 신권정치였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림 세력이 성종 즉위 후 김종직을 시작으로 언론기관인 삼사에 대거 등용되면서 자신들의 이상인 신권정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군주의 권력보다 신하의 권력을 우위로 두어 왕권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연산군은 성종 때 약해진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언론기관인 홍문관과 사간원을 없앤 것도 왕권 강화 작업의 일환 중 하나였다.[[3]](#footnote-3)

### 연산군의 사상

연산군은 조선 시대 재위 기간 내에 풍류를 즐긴 유일한 왕이었다. 시대적으로 풍족했을 뿐 아니라 연산군 자신도 성리학 등의 학문보다는 시를 짓거나 음악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다. 흔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왕이 풍류를 즐기면 정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그러나 연산군은 풍류를 즐기는 것과 나라를 돌보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연산군 통치기간 동안 과거시험을 시 짓기로 보기도 하였다.[[4]](#footnote-4) 아래의 글은 연산군의 풍류에 대한 남들과 다른 관념을 보여주기 적절하다.

예부터 호걸스러운 제왕들 가운데 풍류와 여색에 빠진 자가 많으나 사실 국가의 흥망은 여기에 있지 않다. 비록 왕의 덕이 요순보다 낫더라도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면, 어진 보필을 기대할 수 없고 임금을 얕보게 되는 무리가 많아져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왕이 풍류와 여색에 빠진다 할지라도 국세가 당당하여 온 몸을 던져 충성하는 신하가 조정제 가득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 해도 되지 않고 국가의 복이 무궁한 것이다. 국가의 안위는 신하가 충성스러운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니 당나라 현종 때의 난리도 풍류나 여색에 연유한 것이 아니다. (《연산군일기》 12. 7. 17)[[5]](#footnote-5)

즉, 연산군은 풍류를 행하는 것이 망국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풍류와 정사는 별개의 영역으로서, 오히려 신권정치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연산군은 사림(당시 대다수의 신하들)이 중요시 여기는 ‘덕’을 행하는 왕도정치가 아닌 법가 사상에 기반한 왕권우위의 패도정치를 추구하였다. 패도정치에 근간에는 힘이 있다. 연산군은 성리학자들의 문치주의 사상이 힘을 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武)’를 기르는 정책(무관 우대, 정기적인 진법훈련)[[6]](#footnote-6)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연산군은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던 성리학에 반하는 문무가 겸해진, 법가 사상을 가진 왕이었다. 따라서 신하들과 왕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다.

## 연산군대의 정치와 사건

앞서 언급했듯이, 연산군의 정치 이상은 법가 사상을 기반으로 한 왕권 중심 국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리학이 정치 신념인) 신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 신권 견제

연산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의 권력을 억제시키려 하였다. 신권을 약화 하려면 왕권을 견제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요소는 언론 삼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에 대한 제재와 왕권 견제 수단(정책)의 폐지로 나타난다. 성종 이후로 신권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판단한 연산군은 신하들의 모든 언론 활동을 ‘윗사람을 능멸한다’는 의미의 **‘능상**(凌上)’으로 간주하여 신권 견제에 주력했다.[[7]](#footnote-7) 연산군은 삼사 중 홍문관과 사간원을 폐지하고 신하가 왕에게 강연하는, 사실상 견제 수단인 경연도 폐지하였다. 더욱이 무오사화·갑자사화를 일으켜 수 많은 신하들을 숙청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 하였다.[[8]](#footnote-8)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오사화의 경우 폐비 윤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색출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감정으로만 신하들을 숙청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숙청의 규모는 총 52명으로, 유배(31명)와 파직(15명)이 대부분이었다.[[9]](#footnote-9) 즉, 이 사화는 신하들에게 신권 견제를 위한 경고로서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패륜 행위

연산군의 패륜 행위로 알려진 것 들 중 두 가지를 꼽자면 성종의 후궁을 몽둥이로 죽인 사건과 인수대비를 머리로 치받아 죽인 사건이 있다.[[10]](#footnote-10)

우선 전자인 ‘서모장살’ 사건은 《연산군일기》를 분석해보면 사관의 악의적인 날조로 기록된 것 임을 유추할 수 있다.[[11]](#footnote-11) 먼저 《연산군일기》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의 전반부 기록을 보면 후궁 정씨와 엄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들의 아들인 이항과 이복을 불러 들였으나 대면한 적도 없고 풀어주라는 하명을 내렸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이항과 이복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면도 한 적 없을뿐더러, 풀려난 이들이 다시 돌아와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사관이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날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사건은 ‘인수대비의 죽음’이다. 널리 알려진 오해 중 하나가 연산군이 인수대비의 죽음에 직접적인 일조(머리를 치받음)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연산군일기》를 보면 이 것이 낭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극진히 효도하였다.

왕은 대비전을 효도로 받든다 하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때로는 밤중에 달려가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시종들을 핍박하여 험한 곳에 놀이를 나가기도 하였다. 왕은 대비를 위하여 경회루 연못에 배들을 띄워 가로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평지처럼 만든 뒤 채색지붕을 씌웠다. 이어 바다에 있는 삼신산을 상징하여 산을 만들고 그 위에 각종 전각과 절, 인물 등의 모양을 벌여놓아 온갖 기교를 다한 뒤, 왕은 스스로 시를 지어 걸고 또 문사들도 짓게 했다. 대비가 억지로 잔치에 참석은 하였지만 연회가 파하면 늘 한숨 쉬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 9. 2)[[12]](#footnote-12)

연산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는 중종대에서도 연산군이 대비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실록을 통하여 대비의 감정 상태를 진정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비에 대한 연산군의 효심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불교를 숭상한 대비를 위해 불교에 대한 감찰을 완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신하들을 파직하기까지 한다. 또한 대비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답례로 연산군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13]](#footnote-13)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인수대비와 연산군의 사이가 나빴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연산군이 인수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호색한

보편적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악행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호색’이다. 연산군이 호색한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흥청’ 제도이기도 하다. ‘흥청망청’[[14]](#footnote-14)은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이라는 뜻이다. ‘흥청망청’은 연산군이 채홍사를 파견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궁궐에 살게 하고 그들을 불러 연회를 벌였는데, 이 처녀들을 '흥청(興靑)'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15]](#footnote-15) 용어의 정의나 유래를 보면 ‘흥청’이 부정적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흥청의 처녀들은 원래 관기이며, 관기 중 뽑혀 나간 관기들이 흥청과 운평으로 구분되어 궁 내의 행사에 두루 참여하였다. 이 행사란 연산군이 사사로이 여흥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흥청이 사신을 대접하거나 ‘의전(국가 간의 공식 의례에서 통용되는 예법으로 국기, 국가원수, 서열, 국제회의, 축의와 조의, 상훈 등이 있다)[[16]](#footnote-16)용 가무악대’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즉, ‘흥청’ 제도는 단순히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궁 내의 주요 행사에 이용되는 악대라고 볼 수 있다.[[17]](#footnote-17) 따라서 연산군이 흥청을 불러 연회에서 유흥을 즐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연산군의 폐위 원인

위의 사례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산군이 실제 연산군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산군이 폐위 당하여 악의적으로 왜곡된 원인은 연산군의 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리학을 멀리한 왕권 강화와,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한 어리석음에 있다.

첫째, 왕권 강화를 위해 지나치게 신권을 억제하였다. 왕권의 견제 수단을 과도하게 제거한 것이다. 언론기관인 삼사를 폐지·축소하여 억압하고, 경연과 같은 왕과 신하 간 토론의 장을 없애 대화 기회를 단절하였다. 더욱이 갑자사화에서는 수 많은 신하들이 희생되었다{239명(사형·부관참시 122명, 51.1퍼센트)}[[18]](#footnote-18). 무오사화가 신하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였다면 갑자사화는 신하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폭행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사림 세력뿐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연산군에게 반(反)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신하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였다. 중종반정 때 반정의 당사자들이 연산군에 총애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박원종, 성희안, 유순정).[[19]](#footnote-19) 주군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정의 움직임이 보이자 반정 세력에 가담하여 연산군을 폐위한 것이다.

# **결론**

연산군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연산군은 반정 세력에 의해 역사서에 왜곡되어 그려진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산군과 신하 간 합이 맞지 않아 반정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산군은 성리학을 불호하며 강력한 왕권 국가를 설립하려 하였고, 반면 신하들은 성리학의 이상인 신권정치를 추구하는 데서 대치가 되었다. 서로의 지향점이 달랐으므로 신하들은 새로운 임금을 추대하였고, 반정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연산군을 희대의 폭군으로 왜곡해야만 했다. 시대적 상황과 이익 관계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의 정확성이 선행조건이어야 한다. ‘사실’이라는 원료를 이용하여 ‘역사’의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거짓이면 그 가공품도 가짜이므로 쓸모 없게 된다. 즉, 역사가에게 있어 진실된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충분조건이다.

진실된 사실을 역사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고 역사가의 견해·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만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 냉소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 사실이 결합된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 받아야 한다. 역사가 기록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역사가의 주관이 역사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추구하던 가치와 현대의 추구하던 가치가 변화되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재평가는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교훈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융합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사는 끊임없이 재평가 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 지식산업사, 2003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 『역사저널 그 날 2』, 민음사, 2015

고우영, 『연산군 1』, 애니북스, 2006

고우영, 『연산군 2』, 애니북스, 2006

고우영, 『연산군 3』, 애니북스, 2006

E. H. 카, 이화승 옮김, 『알기 쉽게 풀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베이직북스, 2011

1. 송락규, 「미-중 눈치 보는 박근혜 정부, 광해군에 배워라」, 오마이뉴스, 2015. 3.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159 [↑](#footnote-ref-1)
2.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 지식산업사, 2003, pp.43-47 [↑](#footnote-ref-2)
3. 위의 책, pp.56 [↑](#footnote-ref-3)
4. 위의 책, pp.114-115 [↑](#footnote-ref-4)
5. 위의 책, pp.107 [↑](#footnote-ref-5)
6. 위의 책, pp.141-142 [↑](#footnote-ref-6)
7. 네이버 캐스트, 「인물 한국사」, 『연산군』, 201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6778 [↑](#footnote-ref-7)
8.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팀, 『역사저널 그 날 2』, 민음사, 2015, pp.214-215 [↑](#footnote-ref-8)
9. 위의 책, pp.190-191 [↑](#footnote-ref-9)
10. 고우영, 『연산군 3』, 애니북스, 2006, pp.41-55 [↑](#footnote-ref-10)
11.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 지식산업사, 2003, pp.239-253 [↑](#footnote-ref-11)
12. 위의 책, pp.264 [↑](#footnote-ref-12)
13. 위의 책, pp.257-266 [↑](#footnote-ref-13)
14. "흥청망청", <네이버 국어사전> [↑](#footnote-ref-14)
15. “흥청망청”, <네이버 지식백과> [↑](#footnote-ref-15)
16. “의전”, <네이버 국어사전> [↑](#footnote-ref-16)
17. 신동준, 『연산군을 위한 변명』, 지식산업사, 2003, pp.267-275 [↑](#footnote-ref-17)
18. 네이버 캐스트, 「인물과 역사」, 『갑자사화』, 201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6778 [↑](#footnote-ref-18)
19. 위의 책, pp.431 [↑](#footnote-ref-19)